

부활 제2주일 복음나누기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요한 20,19-31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22 이렇게 이르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 27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주간 첫날 이른 아침’과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주간 첫날 저녁’과 ‘여드레 뒤에’ 집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발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간 첫날 저녁, 제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습니다.(20,19ㄱ) 무엇이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가놓은 채 어둠에 머물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행적과는 달리 무참한 십자가 죽음은 그들 자신도 언제 예수님과 같은 죽음으로 내몰릴지 알 수 없는 불안과 불신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오직 ‘생명의 빛’, 곧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지만(14,27; 16,33) 그들의 닫힌 마음에는 평화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지 못하는 그들의 나약함과 부족한 믿음, 두려움도 그들 한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그분은 잠긴 문을 열고 오시듯 그들의 마음을 여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십니다.(20,19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어둠과 닫혔던 마음’이 평화로 넘치며 기뻐합니다.(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부활하여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확신은 제자들의 어둠을 기쁨의 빛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14,18-19; 16,20-24 참조)

믿음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는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평화’와 더불어 ‘성령’이 부여됩니다.(20,21-23)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넘겨주고 또 심장에서 물을 흘려보내실 때 온 세상에 주어졌던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숨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창세 2,7; 에제 37,9-10 참조)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들이 지니게 될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죄권을 지니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정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발현체험을 통해서만 확고해지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토마스한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20,25ㄱ)라고 전하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토마스는 어둠의 신앙, 불완전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의 완고한 현실주의는 믿음의 눈을 멀게 하여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며 새로운 그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잠긴 문’과 ‘마음’을 열고 오시는 우리의 평화이신(26절; 에페 2,14 참조) 주님께서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요한 20,27)하시는 말씀은 비단 토마스에게만하시는 말씀일까요? 토마스는 자신이 요구했던 증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분 앞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28절) 이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느님’으로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활발현을 전해 들어야 했던 토마스는 사도들의 부활신앙을 전수받는 우리의 모습

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드레 뒤’, 주간 첫날 저녁 토마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전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현하는 신앙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1코린 11,26; 사도 20,7 참조) 예수님께서 토마스,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믿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새로운 그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게 하며, 또한 그것을 대면하여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란 신앙고백을 한 체험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